

지역 소식통

김제시, 농축산물 구입 시 은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9일부터 김제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은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급행사는 농축산물 체감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행사로 운영기간은 9일부터 15일까지 1주간 진행된다.

9일에서 오는 15일까지 김제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입하면 1인 최대 2만원 한도에서 은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이 3만 4천원 이상 6만 7천원 미만이면 1만원, 6만 7천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환급대상은 국산 농축산물로, 수입 품목은 인정되지 않으나 구입 시 주의해야 하며 환급방법은 전통시장 내 국산 농축산물 판매 점포에서 당일 구매한 영수증과 본인확인수단(신분증 등)을 지참해 지정된 환급장소인 청년몰로 방문하면 된다. 단 환급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상품권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농기센터, 딸기 꽃눈 분화 검경 서비스 제공

김제시농업기술센터는 관내 딸기재배 농가 대상으로 고품질 딸기 생산성 증대를 위해 꽃눈분화 검경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딸기는 꽃눈이 미분화된 묘를 일찍 정식하면 개화가 늦어져 수확시기가 늦어지고, 꽃눈이 분화된 묘를 늦게 정식하면 분포에서 영양생장이 약해져 수확량이 감소한다.

따라서 최적의 정식시기를 알기 위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꽃눈분화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꽃눈분화 검경 희망농가는 9일과 11일 오후에 딸기 모종 3~5본을 가지고 김제시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으로 방문하고, 공짜로 사향은 기술보급과 특화작목팀(540-4534)에 문의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소규모 한우 축사 폐업 지원

주거 밀집지역 위치한 50두 미만 농가 대상 보상 실시... 축산 악취문제 근본적 해결 기대

완주군이 주거 밀집지역 축산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축사의 폐업을 지원한다.

지난 6일 완주군에 따르면 주거 밀집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축산 악취는 고질적인 악취로 인해 주거권을 침해한다는 주민 민원이 큰 사안이다.

반면 축산 농가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운영 중인 축사를 이전, 폐업하는 것은 재산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완주군은 축산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악취저감 장비 시설 설치 등 악취저감 시설개선이 어려운 소규모 한우 축산 농가가 폐업을 희망할 경우 폐업에 따른 보상을 실시한다.

주거 밀집지역에 위치한 50두 미만 소규모 한우 축산 농가가 대상이며, 폐업을 희망하는 축산 농가에 대한 복수 감정평가를 통해 적절한 보상금을 산정할 예정이다.

지원 사업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완주군이 주거 밀집지역 축산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축사의 폐업을 지원한다.

축사 폐업을 완료하면 폐업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폐업 유도 등으로 인해 위촉될 수 있는 한우 축산인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병행한다.

완주군은 완주 한우 산업의 명품화를 목표로 한우 사육 시스템을 표준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악취문제를 둘러싼 주민갈등이 보다 빠르게 봉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악취, 환경문제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적극 대응하면서 축산농가 경쟁력도 함께 강화하는 방안을 꾸준히 고민하겠다"고 했다.

폐업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완주군청 농업축산과(290-3241)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염재복 기자

'특장산업 기반한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김제시, '특장차산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3대 중점분야·9개 세부전략 제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6일 '특장차산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진행 상황 점검 및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도출하기 위해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김희욱 부시장을 비롯해 전북자치도, 한국교통안전공단, (재)자동차융합기술원, 건설기계 부품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북연구원, 전주대학교 등 관계자 및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듣고 질의응답을 통한 보완 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열린 논의를 벌였다.

이번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더버티지전략컨설팅은 글로벌 건설경기 불황 및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 AI 자율주행 등 급변하는 산업구조 대응을 위한 비전으로 '첨단 특장 차세대 선도도시 김제'를 제시했다.

또한 3대 중점분야로 △차세대 특수목적기반 모빌리티(Purpose-Built Mobility, 이하 PEM) 상용화 기술개발(R&D), △차세대 PEM 생산·실증(인증, 평가)기반구축(인프라), △차세대 PEM 산업육성 및 지원(정책·제도)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할 9개 세부 전략 사업을 제안했다.

김희욱 부시장은 "미래 특장차산업 육성계획 및 전략을 수립하고 신규 국가사업 발굴·대응 등 김제시 주력산업인 특장차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번 연구용역이 김제시만의 차별화된 정책으로 특장차산업 기반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비상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중간보고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반영 후 특장차산업 육성 중장기 로드맵을 오는 11월 중 최종 보고회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하이트진로, 와일드&로컬푸드축제 맥주 10만병 출시

완주군-하이트진로, 출시 기념행사 진행... 축제 성공 개최 다짐

완주 와일드&로컬푸드축제 홍보라벨을 부착한 하이트맥주 10만 병(500ml)이 출시됐다.

지난 6일 완주군에 위치한 하이트진로와 완주군은 출시 기념 행사를 열었다.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제12회 완주 와일드&로컬푸드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했다.

하이트진로는 축제 기간 동안 홍보 부스를 마련해 지역의 대표 맥주 홍보전을 펼칠 계획으로 완주 와일드&로컬푸드축제와의 협업을 통해 축제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하이트진로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협업을 통해 지역축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국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 와일드&로컬푸드축제는 오는 10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3일간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야마!재밌는거! 왜!재밌는거!' 라는 슬로건으로 청정 자연 속에서 즐기는 신나는 놀이와 건강한 먹거리를 맛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 와푸축제 프로그램 사전접수 시작

리틀와푸족·와일드트레킹·패밀리 블록 조립대회 참가자 모집

완주군이 6일부터 와일드&로컬푸드 축제 참여 프로그램인 '리틀와푸족'과 '와일드트레킹', '패밀리 블록 조립대회' 참가자 사전 모집에 돌입했다.

리틀와푸족은 10월 4일부터 6일까지 1일 3회 진행되며 총 270명을 모집한다. 텐션기 만들기, 사냥연습, 대나무 낚시 등 축제장에서 야생의 추억을 만끽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돼 매년 참여자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이다.

와일드트레킹은 올해 신규 프로그램으로 1일 1회 진행되며 총 180명을 모집한다. 축제장을 시작으로 고산자연휴양림 일원 숲길을 트레킹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족단위로 선착순 모집한다.

와푸 패밀리 블록 조립대회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프로그램으로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블록 조립대회다. 10월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되며 총 50팀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1위부터 3위까지는 시상금이 있을 예정이다. 참가비는 1만원이며 와일드트레킹과



완주군이 6일부터 와일드&로컬푸드축제 참여 프로그램인 '리틀와푸족'과 '와일드트레킹', '패밀리 블록 조립대회' 참가자 사전 모집에 돌입했다.

와푸 패밀리 블록 조립대회의 참가비는 당일 참여 등록 시 축제상품권(1만 원권)으로 교환해 준다.

사전접수는 9월 6일부터 30일까지 축제 홈페이지(www.wanjufestival.kr)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완주와일드&로컬푸드축제추진위원회(063-290-3978)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는 김제노인복지센터가 추석을 맞아 5일~14일 '오색한복에 담은 풍성한 한가위' 행사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1,035명의 어르신과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어르신들이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길"

김제노인복지센터, '오색한복에 담은 풍성한 한가위' 행사 진행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김제노인복지센터(센터장 박경란)가 추석을 맞아 지난 5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오색한복에 담은 풍성한 한가위' 행사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1,035명의 어르신과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을 위해 담당 생활지원사가 각 가정을 방문해 겨란 한 판을 전달하고 어르신과 함께 색종이 한복 접기 프로그램과 추석에 대한 회상 활동을 진행,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우울감 해소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프로그램을 함께한 한 어르신은 "명절을 맞아 자식들도 바빠 찾아오지 못해 외로울 수 있었는데 직접 방문하여 겨란도 주시고 추석에 대한 추억을 회

상하는 시간을 가져 간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김제노인복지센터 박경란 센터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어르신들이 추석 명절을 조금이나마 더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제노인복지센터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어르신 전화안부 점검을 통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의 안부확인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다 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Advertisement for '112' reporting crimes. It features a woman covering her face in distress and text explaining the benefits of reporting crimes to the police, such as protecting the child and reporting to the police. It includes a phone number 112 and a list of crimes to report.